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 도 자 료**	역동경제 평창올림픽

2017년 8월 1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7월 31일(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7. 7. 28.(금)	담당부서	산업피해조사과 덤핑조사과
담당과장	채규남 과장(044-203-5860) 고재강 과장(044-203-5870)	담당자	송병철 사무관(044-203-5864) 나강운 사무관(044-203-5875)

무역위원회, 「중국산 아연도금철선」에 대해 반덤핑조사 개시 결정

□ 무역위원회는 8.1.(화), 한국선재㈜, (주)대아선재, 진흥철강(주), 한일스틸(주) 등 4개사가 「중국산 아연도금철선(Galvanized low carbon steel wires)」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면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한 건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.

○ 조사를 신청한 국내기업 4개사는 모두 중소·중견기업으로 중국산 제품의 덤핑으로 매출 감소 등 피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.

* 조사 개시결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'17.8.1(화) 전자관보(행정자치부 홈페이지 정책자료/전자관보) 참조

□ 조사대상물품인 아연도금철선은 철조망, 펜스, 스테이플러의 철심, 철못 등에 사용되는 제품으로, 국내시장 규모는 '16년 약 1천억 원 수준이며, 이중 중국산은 약 80%, 국내산은 약 20%다.

<아연도금철선>



□ 향후 무역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(WTO) 반덤핑협정과 국내법령에 따라 예비 조사(5개월 이내)와 본 조사(5개월 이내)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판정할 예정이다.

○ 조사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 분석, 현지실사 및 공청회를 통해 공정하게 조사를 실시해,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의 덤핑이 있었는지 여부와 덤핑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매출·영업이익 감소 등의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피해조사과 송병철 사무관(☎ 044-203-5864), 덤핑조사과 나강운 사무관(☎ 044-203-587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**중국산 아연도금철선 반덤핑조사 개요**

□ 조사 개요

○ 신청인 : 한국선재㈜, ㈜대아선재, 진흥철강㈜, 한일스틸㈜

○ 피신청인 : (중국) 후이푸 메탈, 화위안 메탈, 화위안 타임즈

○ 조사대상물품

- 품명 : 아연도금철선(Galvanized low carbon steel wires)

* (조사범위) 철이나 비합금강 또는 저합금강(합금원소의 함유량의 합이 전체 중량의 8% 미만인 그 밖의 합금강을 말함)에 아연을 용융 또는 전기도금한 것으로 탄소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.25% 미만인 원형 또는 원형에 가까운 철선(線)

- 용도 : 철조망, 펜스, 스테이플러의 철심, 철못 등에 사용

- HSK 분류 : 7217.20.0000, 7229.90.9090

○ 조사대상기간 : (산업피해) '13.1.1.~'16.12.31., (덤핑) '16.1.1.~'16.12.31.

□ 국내시장 현황

○ 국내생산자 : 한국선재㈜, ㈜대아선재, 진흥철강㈜, 한일스틸㈜ 등

○ 국내시장규모('16년) : 약 1,000억원 / 약 14만톤

□ 향후 일정

○ 예비조사(5개월 내 판정) → 본조사 및 공청회(5개월 내 최종판정)